

2019

제7호

발간년월 2019년 9월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감 수 최재선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인 양창호

홈페이지 [www.kmi.re.kr](http://www.kmi.re.kr)

##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 산업계와의 협력이 관건

이윤정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전문연구원

(yjlee@kmi.re.kr/051-797-4734)

김경신 해양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kskim@kmi.re.kr/051-797-471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해양플라스틱 문제를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해양플라스틱 관리 정책에서 산업계와의 협력을 위한 정책을 검토한 후, 국내 플라스틱 산업계의 대응활동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제사회는 해양플라스틱 문제의 복잡성과 난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플라스틱의 제조, 가공, 유통, 폐기 및 재활용의 전 과정을 연계하여 자원을 순환시킴으로써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을 근본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이다.

먼저 국제기구가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계와 협력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유엔 환경총회(UNEA)는 2014년 제1차 회의에서 해양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2019년에 개최한 제4차 회의까지 논의 발전시켰다.

유럽연합은 플라스틱 산업계에게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 혁신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고,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기구인 'Circular Plastics Alliance'를 올 1월에 설립하였다. EU는 Horizon-2020을 통해 총 3억 유로 가량을 플라스틱 전략 이행을 위한 혁신 기금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 내 플라스틱 제조 산업을 대표하는 Plastics Europe은 2018년에 EU의 플라스틱 전략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회원사들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 'Plastic-2030'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플라스틱 산업계가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America Chemical Council은 2018년에 플라스틱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플라스틱 포장 자원의 설계, 제조, 유통, 재활용에 속한 기업들이 자원순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대응 활동을 제시하였다.

---

한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라스틱 산업단체인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작년에 ‘플라스틱산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계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국내외 플라스틱 산업계의 대응 활동은 국제기구, 국제 환경단체, 해당국(유럽연합)의 협력정책의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플라스틱 산업계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저감에 노력하기로 선언을 했지만,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이 미치는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 보다 진전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국제사회 간 산업계 협력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 비교·분석을 통해 협력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순환경제’ 개념을 적용하여 플라스틱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으로 유입되는 핵심 플라스틱 품목에 집중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이나 클라우드 펀딩 사업 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산업계와의 협력정책은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산업계의 참여가 필요한 분야, 즉 대체재 개발 및 디자인 변경, 시민 인식제고 및 정화활동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계 협력방안이 실제 성과를 발휘하려면 산업계와 정부 간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구와 재활용 산업 활성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재생원료로서 해양플라스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양질의 기초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을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에 참여시켜 과학적 엄정성을 강화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한 폐기물 통계를 개선하여 해양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재활용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 해양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 국제현안으로 부각

### ■ 우리나라와 세계 해변·해수에 방치된 쓰레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재질

- 국제 환경단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플라스틱을 확인함
  - 106개국에서 실시된 2017년 국제연안정화 캠페인에서 담배꽂초, 식료품 포장재, PET병, 비닐봉투 등이 다수를 차지
  - IUCN의 Project AWARE가 실시한 수중 해양플라스틱 조사에서도 PET병, 비닐봉투, 포장재 등이 많이 발견
- 우리나라도 해안가 방치 쓰레기는 플라스틱이 절대 다수를 차지
  - 2016년 모니터링 사업에서 플라스틱류가 89%를 차지, 이중 포장재 비중이 가장 높음

### ■ 우리 해변 및 해수를 비롯한 전 세계 바다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

- 세계 바다 속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수 및 해변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됨
  - 우리나라 연안과 주요 만 표층 해수의 오염도는 전 세계에서 중상위권에, 모래해안 퇴적물의 오염도는 상위권에 속함

##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해양 플라스틱에 대응

### ■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은 정부 주도 사업, 산업계 정책은 부족

- 해양플라스틱의 발생 예방, 수거, 처리·재활용 전반을 다루나 대부분 정부 추진 사업이며, 산업계를 대상한 정책은 일부 포함됨
  -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율’ 확대,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지침’ 마련 및 합동 점검 등
  - ‘어구 및 부표 보증금제도’, 침적쓰레기 수거해역 확대, 재활용 제품 전시회 개최 등은 관련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산업계 참여를 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 ■ 환경부는 산업계 협력을 중시하나 해양플라스틱 대상 정책은 없는 실정

- 환경부는 ‘자원순환’ 관점에서 플라스틱의 제조생산에서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여 연관 산업기업 대상 정책을 제시함
- 오염이 심한 해양플라스틱은 재활용 및 처리에 있어 시장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움에도 플라스틱 대책에서 제외됨

## 국내 산업계의 해양 플라스틱 대응 미미

### ■ 국내 플라스틱 산업계의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미흡

-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플라스틱산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계 선언문(2018.11)’을 발표,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함
- 선언문에는 ‘해양플라스틱’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해당 산업계가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떠한 기여를 할지 알 수 없음

### ■ 소비자 대상 업종에서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움직임

- 요식업, 유통업, 패션업, 숙박업에서 친환경 경영, 사회공헌 목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저감하거나, 해변정화 활동을 추진함
- 해양플라스틱을 원료로 재활용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서 판매하는 신규 사업체가 등장함

## 국제사회, 산업계 참여 적극적으로 유도

### ■ 국제기구, 플라스틱산업을 대상으로 규제 논의·협력 캠페인 추진

- UNEP는 기업, 정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2017년에 착수, UNEA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 중임
  - 제3차 회의에서 구속력 있는 조치 마련을 결의, 제4차 회의에서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을 위한 산업계 협력을 결의
  - Clean Seas 캠페인은 정부의 플라스틱 감소정책 시행, 기업의 플라스틱 포장 최소화, 소비자의 폐기습관 변화를 추구

- 바젤협약은 오염된 플라스틱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기로 합의, 폐기물의 친환경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설립함
  - 2019년에 ‘협약으로 관리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추가
  - ‘Partnership on Plastic Waste’는 2020년부터 각국의 폐기물 저감, 대중인식 제고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할 예정

## ■ 유럽연합, 사회경제 시스템을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폐기물 정책 추진

- 유럽은 해양플라스틱 문제를 ‘해양’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시스템을 ‘순환경제’로 전환시키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함
  - 유럽연합은 2015년 ‘순환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수립하고, 플라스틱 산업을 5대 중점 분야로 선정
  - 2018년에 ‘Plastic Strategy’를 발표,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에서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순환’ 개념을 도입
- 전략에는 해양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법 개정사항도 제시함
  - Waste Framework Directive를 개정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 확인 및 발생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
  - Port Reception Facilities Directive를 제정하여 선박 발생 폐기물, 화물 잔재물의 해양 유입을 저감하도록 규정
  - 일회용 플라스틱 및 어구 지침을 제정하여 10대 해양 플라스틱 품목과 어구를 대상으로 시장 출시 제한, 소비 감축, 분리수거, 제품 디자인의 변경, 생산자책임재활용 적용, 라벨 부착, 인식 제고 등을 규정
- Plastic Strategy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산업계가 이행해야할 조치를 제시, 이를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함
  - 4대 전략별로 산업계의 이행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선(先) 자발적 참여, 후(後) 산업계 대상 조치 강화’ 원칙을 수립하여 기업들로부터 자발적 서약을 받은 후, 정부-기업 간 협의체인 ‘Circular Plastics Alliance’를 설립
- 연구 및 혁신 기금 Horizon 2020을 통해 Plastic Strategy 목표 달성에 적합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

-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원료 개발, 효율적 재활용 프로세스 개발, 유해 물질 및 오염 물질 제거 등에 1억 유로를 2020년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

## ■ 국제환경단체, 기업 지원프로그램 개발, 해양플라스틱 모니터링 정보 제공, 시민 캠페인 추진 산업계의 대응 행동을 촉구 및 지원

-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해양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전략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기업용 가이드를 개발함
  - 목표 설정, 디자인 설계, 인프라 개선, 소비자 대상 활동 등
- Ocean Conservancy는 국제연안정화(ICC) 캠페인을 추진, 해양플라스틱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업과 협력함

## 해외 플라스틱 단체·기업의 대응 활동

### ■ 플라스틱 산업대표 국제단체, 플라스틱 기업·단체의 해양플라스틱 대응 주도

- 세계 플라스틱 단체들은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Global Plastic Alliance를 2011년 설립함
  - 40개국, 75개 단체가 서명한 선언문에는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계가 집중해야 할 6대 핵심 분야를 선정
    - \* 인식제고, 조사연구, 공공정책 지원, 모범사례 공유, 재활용에너지 회수, 펠릿 유실 방지
  - 2017년까지 총 361개 프로젝트를 계획, 수행, 완료했으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20%, 유럽 31%, 북남미에 36% 분포
  - 동북아 3국 중 일본은 2011년부터, 중국은 2015년부터 프로젝트를 수행보고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보고된 사업이 없음
- Alliance to End Plastic Waste는 해양플라스틱 제거를 위한 솔루션 개발을 목적으로 2019년에 만든 비영리 기업 연합체임
  - 플라스틱 가치사슬을 선도하는 30여 개 기업으로 구성, 우리 기업으로는 올 6월에 가입한 SKC가 유일
  - AEPW의 4대 핵심 분야로는 인프라 개발, 기술 혁신, 교육 및 인식 제고, 해양 정화활동이 해당

- 현재 도시 파트너십, 세계 정보화 사업, 창업보육센터, 지역사회 교육, Renew Oceans 프로젝트를 수행 중
- Asia Plastic Forum은 플라스틱 산업과 관련된 경제 현안이나 사회적 이슈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1991년에 설립됨
  - 회원국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중국, 일본, 인도, 스리랑카, 그리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참여
  - 28차 회의(2018.9)에서는 ‘순환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주제로 플라스틱 업계의 지속가능성을 논의

## ■ 유럽연합의 플라스틱 산업단체, ‘Plastic Strategy’의 이행을 지원, 해양플라스틱 발생 예방 및 해양 정화를 위해 노력

- 유럽 내 플라스틱 제조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PlasticEurope은 회원사들의 ‘Plastic Strategy’ 이행을 주도함
  - 전략에 제시된 산업계 대상 권고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담은 ‘플라스틱-2030’을 2018년 1월에 발표
  - 여기에는 환경 유출 예방, 자원 효율성 및 플라스틱 순환성 향상, 글로벌 활동 등 3대 영역별 대응활동을 제시
  - 앞으로, 성과지표를 표한한 행동계획을 수립 및 모니터링하고, 연차별 진행보고서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
- 플라스틱 가공업체를 대표하는 EuPC는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자 Waste Free Oceans를 2011년에 설립함
  - 해양 부유 플라스틱 수거, 재활용, 인식 교육 등을 실시
  - 최근 해양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재생플라스틱으로 임시보호소 건축 및 보급 사업을 추진 중
- 영국의 Sky그룹은 참신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기업가들을 지원하는 Sky Ocean Ventures를 설립함
  - 젊은 기업가들을 위한 1억 파운드의 민간 투자자금을 모집
  - 공공 플라스틱 연구혁신기금(PRIF)에 300만 파운드를 투자
  - 인큐베이터 프로젝트인 Innovators in Residence를 추진



## ■ America Chemical Council,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플라스틱 산업계의 목표 설정, 주요 대응활동 영역 제시, 대응 프로젝트를 수행

- 미국 ACC가 플라스틱 재활용 목표를 수립 및 공표, 회원사들이 자원순환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2020년까지 Operation Clean Sweep-blue 가입
    - \* Operation Clean Sweep-blue는 펠릿, 분말, flake의 환경 유실을 방지하는 프로그램
  -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100%를 재활용, 에너지 회수
  -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100%를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 ACC는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단체와 협력, 플라스틱 폐기물 인프라 개발, 포장재 디자인 개선을 주요 활동 영역으로 제시
- Plastics Industry Association과 함께 생산, 유통 과정에서 유출되는 펠릿을 관리하고자 Operation Clean Sweep을 개발
  - 펠릿의 적절한 관리 절차와 취급방법이 제시, Operation Clean Sweep-blue는 분말, flake도 포함
  - GPA가 2011년에 발표한 선언문에 포함되어 국제적 프로그램으로 발전, 전 세계 33개 국가가 가입(우리나라 제외)
- ACC는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76개 프로젝트를 직접 혹은 공동 수행하거나, 지원하였음

## 해양플라스틱 해결을 위한 산업계 협력 방안

### ■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산업계와의 협력의 차이는 산업계의 대응 활동의 차이로 나타나

-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 달리 해양플라스틱 관리 정책을 ‘순환경제’ 혹은 ‘자원순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음
  - 폐기물 담당부처인 환경부는 해양 유입 플라스틱을 정책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해양쓰레기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는 ‘자원순환’ 개념을 정책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해양플라스틱 정책은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어구에 대해서도 제조에서 재활용 단계를 포괄하지 못하고, 산업계를 정책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있음



- 이와는 달리 국제사회는 산업계와 협력을 위해 규제 개발, 정책적 목표 설정, 협력기구 설립, 자금 지원, 캠페인 등을 추진함
- 그 결과, 우리나라 플라스틱 산업계의 해양플라스틱 대응 활동은 매우 미흡하여 선도지역인 유럽연합과 미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속한 일본, 중국에 비해서도 차이가 큼

## ■ 우리나라 해양환경 분야 전문가 역시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후방 플라스틱 가치사슬에 속한 산업과의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

- 어업용 폐기물 등 해상기인 플라스틱과 포장재 및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협력을 통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연관 플라스틱 산업별로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실시한 결과, 협력 정책과 산업계의 대응활동 모두 노력 집중형(Concentrate Here)에 해당함
  - 모든 플라스틱 산업과의 협력정책이 필요하나, 현재는 협력정책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음
    - \* 플라스틱 산업: 석유화학, 플라스틱 제조 및 가공, 일회용 소비재 제조, 폐기물 수집처리
  - 모든 플라스틱 산업의 대응활동은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하나, 현재 대응활동 수준은 미미함

## ■ 해양수산부는 산업계 협력정책을 순환경제 관점의 접근, 해양중심의 접근, 시장 지향적 접근하여 수립하여야

- 순환경제 관점의 접근(Circular Economy Perspective Approach)
  - 전후방 플라스틱 가치사슬에 속한 산업을 포함한 정책 수립
  - 관련 산업과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해양플라스틱의 재활용성을 제고하고, 폐기물처리 여건을 개선하여야 함
- 해양중심의 접근(Marine Based Approach)
  - 해양플라스틱 품목을 선정 및 집중관리
  - 품목별로 해양유입 지점을 관리하여 해양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해양 플라스틱의 발생 및 영향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
- 시장 지향적 접근(Market Oriented Approach)
  - 해양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 추진

- 해양플라스틱 발생 예방, 효율적 수거, 전처리, 재활용 등에서 민간 참여 유도, 관련 기업·산업 육성 필요
- 인증제, 라벨링 등 시장기반 수단을 개발

## ■ 협력정책에는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계 대응이 필요한 핵심 대응 활동을 포함 시켜야

- 일회용 플라스틱 및 어구의 해양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임
- 특히 어망, 부표는 어업용 폐기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나, 사용 후 폐기 및 재활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생산되고 있음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많은 Consumer Package Goods 관련 산업의 디자인 개선, 수거, 재활용 노력이 필요함
- 전략적 사회공헌을 통한 새로운 수익 창출, 소비자 대상 인식제고 및 캠페인 추진이 필요함

## 산업계와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 ■ 플라스틱 산업계와 정부 간 협력을 위해서는 협력 기구 설립, 관계 법령 정비, 해양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활성화 정책 필요

- 플라스틱 제도가공 산업, 폐기물처리 산업, 정부가 협력하여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 기구가 필요함
- 현재 수거에 집중된 해양플라스틱 대응 정책을 발생 예방, 재활용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계의 참여 필요
- 플라스틱 제조, 가공, 유통에 이르는 전방 산업과의 협력은 일회용 플라스틱 등의 해양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
- ‘플라스틱산업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산업계 선언문’을 발표한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포장협회와 해양수산부 간 협력 방안 논의 필요
- 해양플라스틱은 오염물질, 염분 등으로 인해 처리,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함

- 해양플라스틱, 폐기물처리 산업계에게 해양플라스틱 공동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적 기반이 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함
  - 포장재, 일회용 플라스틱 등 해양유입 예방이 필요한 주요 해양플라스틱 품목을 대상으로 연관 산업계가 취해야 할 대응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을 제정
  - 어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발생량이 많고, 민간 폐기물업체에 의해 수집·처리하지 않는 품목을 선정하여, 어업인, 지자체 대상의 관리 행동을 명시하는 규정을 제정
- 해양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 참여 유도, 관련 기업·산업 육성이 필요함
  - 중소벤처기업부, 플라스틱 산업계, 지자체 등과 함께 신생 기업들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 소비자 및 시장에 대한 자문, 행정편의 제공, 인큐베이팅을 위한 지원센터 필요

## ■ 모니터링 추진 체계 및 통계를 개선하여 해양플라스틱 관리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지원

- 모니터링의 과학적 엄정성 강화, 하구 모니터링 구축
  - 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초 정보가 되는 모니터링 자료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체계의 전문화 필요
  - 수로를 통해서 유입되는 플라스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강 하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필요
-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통계 개선
  - 해양쓰레기 역시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이므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해양쓰레기의 수집, 운반, 처리·재활용 정보의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함

## ■ 기존 해양쓰레기 산업의 선진화 및 해외 진출을 도모해야

- 기존 수거 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은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및 수거 산업의 발전을 견인
- 전 세계 주요 어장 환경보전, 개발도상국의 수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해양쓰레기 수거업체의 해외 진출 및 이를 위한 관련 산업의 선진화 필요
  - 모니터링업체, 수거업체 등급제 도입 등

##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해양관광 경쟁력 지수 개발 연구	2019.09.04.
제2호	고등어류 수급통계 개선방안	2019.09.05.
제3호	해수욕장의 사회약자 포용성 증진 방안	2019.09.10.
제4호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 활성화 방안	2019.09.11.
제5호	항만 대기질 특별법 이행에 공공 데이터 연계·활용 필요	2019.09.17.
제6호	한국산 수산물의 글로벌 브랜드화,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 정립' 요구	2019.09.20.

URL: <https://www.kmi.re.kr/>